

벤투호 국내파 “레바논행 티켓을 끊어라”

대표팀 15일 아이슬란드 상대 새해 첫 경기
월드컵 아시아지역 최종예선 7~8차전 대비
“벤투 감독 눈도장 받자” 벌써 내부 경쟁 치열

한국 축구의 상징 호랑이의 해를 맞아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이 새해 첫 경기에 나선다. 파울루 벤투 감독(53·포르투갈)이 지휘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으로 15일 오후 8시 터키 안탈리아의 마르단 스타디움에서 유럽의 북빙 아이슬란드와 친선 경기를 벌인다.

호랑이 얼굴이 새겨진 엠블럼을 사용하는 축구 대표팀은 9일 소집돼 터키 안탈리아로 출국, 전지 훈련을 진행 중이다.

15일 아이슬란드, 21일 몰도바와 친선 경기를 치른 뒤 25일 레바논으로 이동한다. 이번 두 차례 친선 경기는 27일 레바논, 2월 1일 시리아를 차례로 상대하는 2022 국제 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예선 7~8차전에 대비한 평가전 성격이다.

특히 이번 터키 전지 훈련에는 골키퍼 김승규(가시와 레이솔)를 제외한 25명이 K리그 선수들로 구성돼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받으려

는 내부 경쟁이 치열하다.

레바논과 월드컵 최종예선 7차전부터 유럽파 선수들이 합류하는 상황에서 벤투 감독의 눈에 들지 못한 일부 K리그 선수들은 레바논행이 아닌 귀국행 비행기에 올라야 한다.

이 때문에 이번 두 차례 평가전은 말 그대로 ‘누가 레바논행 비행기에 타느냐’를 정하는 일전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벤투 감독도 이번 소집을 앞두고 “이번 터키 전지훈련과 평가전은 선수들의 면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새로 뽑힌 선수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대표팀 전술에 어떻게 녹아드는지 관찰하겠다”고 말했다.

손흥민(토트넘)과 황희찬(울버햄프턴)이 부상 중으로 이번 레바논, 시리아전 합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파에게 더 많은 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대표팀 소집마다 해외파가 10명 안팎 정도 선발된 만큼 이번에도 그 정도 수의 선수들이 귀국행 비행기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평가전 첫 상대인 아이슬란드는 FIFA 랭킹 62위로 33위인 한국보다 낮은 팀이다.

그러나 2016년 유럽선수권대회 8강에 올랐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때도 본선에 진출하는 등 만만치 않은 기량을 가진 팀이다.

특히 2016년 유럽선수권 때는 조별리그에서 포르투갈과 비기고, 16강에서는 잉글랜드를 꺾으며 돌풍을 일으켰다.

인구 37만 명에 불과한 아이슬란드는 역대 월드컵 본선에 나간 국가 가운데 최소 인구 기록을 갖고 있다.

유로2016 때도 국내에서 ‘서울 도봉구 인구와 비슷한 아이슬란드가 잉글랜드를 꺾었다’는 제목의 기사가 많이 나왔고, 선수의 성이 대부분 ‘손’(-son)으로 끝나는 것도 화제였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는 이미 유럽 예선 탈락이 확정된 아이슬란드는 12일 우간다(FIFA 랭킹 82위)와 터키에서 평가전을 치러 1-1로 비겼다.

이날 득점을 기록한 온 다디 보드바르손은 잉글랜드 2부 리그 밀월에서 뛰는 공격수다.

주로 자국 리그나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 리그에서 뛰는 선수들 위주로 구성됐다.

한국과 아이슬란드는 이번이 첫 맞대결이다. 우리 대표팀은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 조규성·김진수 등이 지난 11일 전지 훈련지인 터키 안탈리아 코벨리아 다이아몬드 필드에서 훈련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제공

역 예선 A조에서 4승 2무로 조 2위를 달리고 있다.

이번 레바논, 시리아와 원정 2연전을 다 이기면 남은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월드컵 본선

행을 확정하고, 27일 레바논을 꺾고 같은 날 조 3위인 아랍에미리트(UAE)가 시리아와 비기거나 패하면 곧바로 월드컵 본선 티켓을 획득한다. /연합뉴스

백승호 vs 이승우...K리그1 내달 19일 킥오프

전북-수원FC 공식 개막전

카타르 월드컵이 열리는 2022년 한국프로 축구 K리그는 역대 가장 이른 2월 19일에 개막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22시즌 K리그1 1-33라운드 일정을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2022시즌 K리그는 역대 시즌 중 가장 이른 2월 19일 막을 올린다. 1983년 출범한 한국프로 축구에서 가장 이른 개막일은 2010년과 지난해의 2월 27일이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이 대회 사상 처음으로 11월에 개막하기 때문에 K리그 일정도 영향을 받게 됐다.

새 시즌 K리그1 공식 개막전은 2월 19일 오후 2시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리는 전북 현

대-수원FC 경기다.

지난해 K리그 사상 최초의 5연패와 역대 최다인 통산 9번째 우승을 이룬 ‘디펜딩 챔피언’ 전북과 지난해 승격팀 돌풍의 주인공인 수원FC의 맞대결로 새 시즌 시작을 알린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인 백승호(전북)와 이승우(수원FC)의 K리그 무대 첫 만남으로도 관심을 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DGB대구은행파크에서는 대구FC와 FC서울,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는 인천 유나이티드와 수원 삼성 간 경기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2시에는 제주 유나이티드-포항 스틸러스, 강원FC-성남FC의 경기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4시 30분에는 울산 현대-김천상무의 경기가 개최된다.

라이벌 팀 간 대결도 기대를 모은다.

2019시즌부터 3년 연속 우승을 다뤘던 전북과 울산은 3월 6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시즌 처음 격돌한다.

울산과 포항의 첫 ‘동해안 дер비’는 3월 20일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서울과 수원의 첫 ‘슈퍼매치’는 4월 1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다.

한편 전북, 울산, 대구와 K리그2(2부) 전남 드래곤즈가 참가하는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조별리그(4월 15일-5월 1일)와 토너먼트(8월 19-28일) 기간에 K리그1은 휴식기를 갖는다.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으로 나뉘어 치르는 파이널 라운드 이전 마지막인 33라운드는 9월 18일 치러진다. /연합뉴스

“세계랭킹 1위는 여전히 궁극적인 목표”

LPGA 12승 김세영 재도약 준비

김세영(29)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12차례나 우승했지만, 지난해에는 데뷔 이후 처음 우승 없이 보냈다.

2015년 신인 때부터 2020년까지 6시즌 동안 매년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던 김세영은 2020년 생애 첫 메이저대회 제패의 기회를 누리며 세계 랭킹 1위의 목표에 근접했던 터라 작년 무승은 아쉬움이 컸다.

김세영은 13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 인터콘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열린 테일러메이드 신제품 발표회에 이어 열린 기자회견에서 “작년은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작년에는 목표를 크게 잡았다. 세계랭킹 1위, 그리고 올림픽도 있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실패였다”는 김세영은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시즌 초반부터 대회 출전이 많았고



김세영

이동이 잦아 거의 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세영은 “궁극적인 목표는 여전히 세계랭킹 1위다. 한계를 정하지 않고 달린다 보면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본다”고 각오를 다졌다.

재도약을 위한 김세영의 전략은 재정비에 선택과 집중이라고 소개했다.

작년 12월 초부터 국내에서 체력 훈련과 레슨을 병행하며 시즌 준비에 몰두한 김세영은 “이번 시즌은 3월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HSBC 챔피언십부터 시작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질주하는 김민선

13일 오후 서울 노원구 태릉국제스케이팅장에서 열린 제48회 전국남녀 스피드스케이팅 및 76회 종합 스피드 선수권대회 여자 500m 1차 스피드스케이팅에서 김민선(의정부시청)이 질주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박찬호·한승택 오늘 페퍼저축은행 홈경기 시구

페퍼저축은행이 KIA 타이거즈 내야수 박찬호(27)와 포수 한승택(28)을 시구자로 초청했다. KIA 선수의 페퍼저축은행 경기 시구는 지난해 11월 13일 투수 장현식·정해영 이후 두 번째다.

페퍼저축은행은 14일 오후 7시 페퍼스타디

움에서 열리는 도드람 2021-2022 V리그 여자부 현대건설전에서 박찬호와 한승택이 시구자로 코트에 선다고 밝혔다.

박찬호와 한승택은 경기 시작 1시간 반 전인 오후 5시 30분경부터 30분간 페퍼저축은행 이은지로부터 배구서브연습 교육을 받을

예정이며 시구자로 나서 페퍼저축은행의 승리를 기원한다. KIA 선수들의 시구는 2022년 임인년을 맞아 호랑이 기운을 불어넣는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페퍼저축은행은 이날 입장객 중 24명에게 KIA 선수들의 사인이 담긴 야구공을 증정할 예정이다. 또 신년을 맞이해 1월 경기 티켓 2매 구매 시 1장을 무료로 주는 패밀리데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조혜원 기자

AG 야구대표팀 감독 선발 이달 말 공고

올해 9월에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한국야구대표팀을 이끌 사령탑이 2월 말이나 3월 초에 확정된다.

최근 개정된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국가대표 지도자 평가일’ 한 달 전에는 국가대표 지도자(감독·코치) 선발 공고를 내야 해이다.

KBO 관계자는 12일 “이번 주 혹은 다음 주 초에 기술위원장을 선임하고 이후 최대한 빨리 기술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며 “감독 선임은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가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공고’를 내면 절차가 시작된다. 1월 말 정도에 공고가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 규정 제9조 국가대표 지도자 및 트레이너의 선발 절차는 ‘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는 국가대표 지도자 선발 일정 등 세부 사항을 정해 국가대표 후보자 평가일 1개월 이전에 공고한다’고 명시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되려면 공고에 따라 지원서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서 제출’은 과거에도 있는 규정이었다. 도쿄올림픽에서 한국 대표팀을 이끈 김경문 전 감독도 당시 사령탑 선임 전에 지원서를 제출했었다. 규정상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 후보를 평가하는 주체는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경기력향상위원회다.

협회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지도자 공고를 내는 시점은 1월 말, 경기력향상위원회가 대표팀 감독 후보를 평가하는 시점은 2월 말이 될 전망이다.

이후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이사회가 경기력향상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보고 감독 최종 후보를 정해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요청한다.

체육회가 승인하면 아시안게임 야구 대표팀 감독 선발 과정이 끝난다.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이 확정된다. /연합뉴스

KIA 19일 나성범 입단식

FA 계약을 통해 고향팀 KIA 유니폼을 입은 외야수 나성범(32)의 입단식이 열린다.

KIA 타이거즈는 오는 19일 오후 2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나성범 공식 입단식을 갖는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입단식에는 장정석 단장을 비롯한 일부 프런트와 김중국 감독, 황대인·장현식이 참석해 나성범의 입단을 축하할 예정이다.

입단식에서 장정석 단장은 나성범에게 유니폼과 모자를 입혀주고, 선수단을 대표해 김중국 감독과 황대인, 장현식이 축하 꽃다발을



나성범

전달할 예정이다.

입단식에 이어 나성범의 기자회견이 진행되며, 공식 행사를 모두 마친 뒤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그라운드에서 포토타임이 진행될 예정이다.

나성범은 지난해 말 계약 기간 6년에 계약금 60억원, 연봉 60억원, 옵션 30억원 등 총 150억원에 KIA와 계약했다. /조혜원 기자